

가사문학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고순희*

<차 례>

1. 머리말
2. 가사 짓기의 문화 :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
3. 장소로의 환원과 정체성 구현
4.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가사문학이 지닌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는 데 있다. 먼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가사 짓기의 문화’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살폈다. 양반가 여성의 ‘가사 짓기의 문화’는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라는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글쓰기의 생활화’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다. 가사문학이 지닌 정신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킨다면 우리 민족성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다. 그리하여 가사문학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다음으로 가사문학이 관광의 키워드인 ‘장소’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살폈다. 다양한 작품세계를 지닌 엄청난 수의 가사문학은 각각 ‘장소’로 환원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작은 기획’을 필요로 한다. ‘작은 기획’을 통해 지역의 주민이 그 ‘장소’를 우선적으로 즐기고 향유

* 부경대학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문학은 이러한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টে이다.

핵심어 : 가사, 문화관광, 관광자원, 규방가사, 담양, 장흥, 안동

1. 머리말

관광에서 문화관광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문학도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문학 작품 및 작가가 지역의 정체성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한 지역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박경리와 원주·하동, 윤선도와 보길도, 정철과 담양, 정약용과 강진·양주, 춘향전과 남원 등이 그곳이다. 이러한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작가 및 작품과 관련한 생가, 기념관, 시비, 누정 등을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가사문학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사문학을 적극적으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어 주목할 만하다. 정전으로 알려진 송강가사, 여성의 일상생활문학이었던 <화전가>, 기행가사,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 토대의 논의와 함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¹⁾.

1) 담양군, 『담양권 가사와 그 유적의 조사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담양군, 2000, 1~395쪽;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 제3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345~399쪽;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217~249쪽; 이형대, 「기행가사 기반의 전자문화지도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311~341쪽;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5~29쪽; 김병국, 「가사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 『한국고시가

이러한 연구는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성과는 가사문학의 전체적 실상과 견주어 볼 때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가사문학의 문화콘텐츠화나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개별 작품이나 지역학의 범주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개별 작품이나 지역학의 범주에 한정하는 논의를 지양하고 ‘가사문학’ 장르라는 보다 큰 범주 안에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인과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기획자가 가사문학 장르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가사문학’ 장르 전체를 논의의 선상에 두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가사문학은 장르적 성격 상 주류문학은 아니었다. 그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타시가 장르에 비해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하여 현대의 한국인 대다수는 고등교육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가사문학 작품만을 알고 있어²⁾, 가사문학의 장르적 본질과 전체 작품세계의 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 한국인의 가사문학 장르에 대한 인식은 주로 교훈과 은일의 주제를 담은 전통시가문학이라는 데에 그쳐 있다. 교훈이나 은일과 같은 주제는 현대의 한국인에게 그리 매력적인 것이 아니어서 현대의 한국인 대다수는 가사문학 장르에 대한 문학적 평가도 인색한 편이다. 가사문학의 장르적 본질과 전

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31~62쪽.

- 2) 일반인의 가사문학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에 의해 규정된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가사문학은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악장, 경기체가, 시조 등의 시가장르에 비해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 편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은 조선전기의 <상춘곡><면앙정가><사미인곡><속미인곡><관동별곡><규원가>, 조선중기의 <누항사><선상탄><고공답주인가>, 그리고 조선후기의 <용부가><우부가><일동장유가><연행가><농가월령가> 등의 가사 작품들 가운데 일부만을 배워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은 가사문학 하면 주로 <면앙정가>나 <사미인곡>과 같은 조선전기 양반가사를 떠올리며, 그나마 조금 더 알고 있다면 은일가사, 교훈가사, 기행가사 등의 가사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체 작품세계의 양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가사문학에 대한 편향적 인식, 가사문학에 대한 낮은 문학적 평가 등은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기획자에게 가사문학이 문화관광자원의 하나로 부각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가사문학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선결해야 할 과제는 현대인과 기획자들에게 가사문학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가사문학이 지닌 전통문학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사문학이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는 입론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사 짓기의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로 장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가사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문화적 의미를 밝혀 가사문학이 지닌 전통시가문학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가사문학 장르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을 수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가사문학의 의미와 가치가 규명된 이후에 해야 할 과제는 가사문학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과 가치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가사문학이 가사문학관광의 키워드인 ‘장소’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타시가 장르와 ‘장소’의 관계를 보면 향가는 경주 인근 지역까지로 한정되고, 고려가요와 시조는 각각 궁중과 유흥공간에서 연회되었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반면 가사문학은 그 창작의 근거지가 향촌사회였기 때문에 ‘장소’로 환원될 수 있는 적합성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르이다. 이렇게 ‘장소’로 환원된 가사문학은 그 ‘장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가사문학 전체의 유전 실상이

다. 가사문학은 역사적 장르로서 조선후기까지 왕성하게 생명력을 발휘하다가 근대기 초반에 그 생명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활발하게 창작되고 향유되어 수많은 무명씨 필사본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리하여 가사문학은 현대 한국인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하고 있는 작품이 수천 편을 상회하며 그 작품세계도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가사문학이 다양한 작품세계를 지니면서 엄청난 수의 작품이 현재까지 유전한다는 문화현상은 이 논문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사문학이 지닌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는 데 있다. 가사문학이 지닌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먼저 2장에서는 ‘가사 짓기의 문화 :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를 살핀다. 가사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규명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장소로의 환원과 정체성 구현’을 살핀다. 관광의 키워드인 ‘장소’와 관련하여 가사문학이 지닌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사문학이 지닌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는 데 중심이 놓여 있어, 4장의 논의는 그 활용의 가능성을 제안해보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2. 가사 짓기의 문화 :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

이 장에서는 가사 짓기의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논의의 예각화를 위해 가사문학 중에서 규방가사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규방가사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규방가사가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지닌 가운데 엄청나게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방가사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와 평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규방가사는 현대인의 가사문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제고하는 새로

운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규방가사의 작가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양반가 여성이다. 그리하여 이 논의에서는 규방가사의 작가층을 양반가 여성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근대 이전 시대에 글쓰기는 양반남성 지식인의 전유물이었다. 물론 양반 남성의 글쓰기는 한문장과 한시가 중심이었다. 모든 양반 지식인은 관리로 진출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고 평생에 걸쳐 글쓰기를 생활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식인’ 하면 ‘글쓰기’와 동일시할 정도로 지식인에게 글쓰기는 필수 요건이었다. 이렇게 근대 이전 시대에는 ‘글’을 지식인의 정신으로 보았으며, 그리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글’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이러한 양반지식인의 보편적 글쓰기는 근대 이전 시대에 인문학적 정신이 생활화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교육열의 증가와 언문의 보급으로 가벼운 교양 수준의 한학과 언문을 익힌 ‘글을 알게 된 층’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서부터 근대기에 이르는 시기에 이르면 모든 양반가 여성과 상당수 서민층이 ‘글을 알게 된 층’에 포함되게 되었다. 특히 양반가 여성은 글을 알게 되면서 양반남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글쓰기를 하고자 했다. 양반가 여성은 어릴 적부터 이전부터 전해오거나 문중 어른이 창작한 가사문학을 향유함으로써 언문을 익혔다. 그리고 가사문학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교양 수준의 한학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언문과 교양 수준의 한학을 알게 된 양반가 여성은 가사문학의 관습적인 창작의 틀 안에서 자신의 글쓰기를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면 양반가 여성은 엄청난 양의 가사문학을 남겨 규방가사의 주담당층이 되었다.

양반가 여성의 가사 창작은 19세기 중엽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언문을 사용하는 인구의 증가와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성이 창작한 규방가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그 수가 확실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천편은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반가 여성이 쓴 규방가사의 작품세계는 대부분 여성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과 문체는 교양 수준의 한학과 언문 정

도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 더군다나 관습적 글쓰기의 전통 안에서 창작이 이루어져 동일·유사한 제목에, 유사한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신선한 표현이나 의경을 획득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작품도 많았다. 그러나 이들 규방가사 작품 가운데는 자신의 주체적 내면세계, 일상을 벗어난 경험세계, 자신의 일생, 역사·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개인의 사연 등을 표현하여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글을 알게 된 양반가 여성’이 다양한 작품세계를 지닌 가사문학 작품을 엄청나게 남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의 양반가 여성이 글쓰기를 아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즉 글쓰기를 생활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글을 알게 된 양반가 여성’이 양산되면서 글쓰기를 생활화한 집단이 남성 지식인 집단 말고 또 하나 생긴 것이다. 근대 이전 시대에는 글쓰기가 양반지식인의 전유물이었으므로 말보다는 ‘글’이 훨씬 문화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문화전통 안에서 양반가 여성들은 글에 대한 믿음을 매우 높게 가졌으며, 글쓰기를 하여 자신의 ‘글’을 남기는 행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양반가 여성은 글을 알게 되었을 때 남성지식인이 평생 글쓰기를 해온 것처럼 가사문학을 통해 그들의 글쓰기를 생활화한 것이다³⁾.

양반가 여성은 글쓰기, 즉 가사 짓기를 통해 문화적 자의식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특히 가사문학의 장르적 성격이 기록적, 산문적, 서술적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4음보 연속 안에서도 시적 성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양반가 여성은 가사를 지으면서 시를 짓고 있다는 문화

3) 양반가 여성이 가사문학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를 하게 된 것은 가사의 장르적 성격에서 기인했다. 가사문학은 쉬운 형식의 우리말 시가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가사문학은 기록성, 산문성, 서술성 등을 지니지만 시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어 산문적 기록과 함께 시적 표현이라는 작가의 두 가지 글쓰기 욕구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었다. 한편 가사문학은 관습적인 글쓰기 안에서 창작되어, 글쓰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사문학이 지닌 친숙성, 개방성, 서술성, 시적 표현성, 관습성 등의 장르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양반가 여성은 가사 글쓰기에 몰두하여 수많은 규방가사 작품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적 자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양반 지식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글쓰기의 주체라고 하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반가 여성의 가사 창작이 매우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사문학은 당대 주류문학이 아니어서 문화 권력을 획득하기는커녕 그들만의 문학, 즉 주변문학으로만 있어왔다. 이러한 점은 안동의 양반문화를 다루는 지역학 연구에서 양반가 여성의 가사문학이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양반가 여성은 자신들의 글이 주류문학으로 편입되거나 문화 권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양반가 여성은 가사문학을 향유하는 것을 필수 교양으로 삼으면서 가사의 글쓰기 자체를 문화적 행위로 즐겼을 뿐이었다. 이렇게 양반가 여성의 가사문학 글쓰기는 매우 주체적인 문화행위로 독립적으로 지속되어온 문화전통이었다.

이와 같이 규방가사 글쓰기의 문화는 양반가 여성의 문화적 자의식을 높이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주체적인 행위로 독립적으로 지속되어온 문화전통이었다. 양반남성이 한문장과 한시를 통해 그들의 인문학적 정신을 생활화하고 있었던 것처럼 양반가 여성은 가사문학을 통해 그들의 인문학적 정신을 생활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양반가 여성의 가사 짓기 문화는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수준으로까지 형성되었던 것으로 인문학적 정신을 생활화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양반가 여성의 가사 짓기의 생활화, 글쓰기의 생활화는 현대인의 글쓰기 양상과 비교해 볼 때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글쓰기의 양상은 전문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고 그것을 일반대중이 소비·향유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현대의 일반인은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글쓰기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현대인들은 자기만의 글쓰기를 주체적으로 즐기지 못하고 자기의 글을 하찮은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다 세련된 표현과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지녔다고 보는 전문직 작가가 쓴 글의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대인은 글쓰기 문화를 잃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과거 우

리의 전통 안에는 전문 작가가 쓴 주류문학과 상관없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글쓰기를 생활화하고 있었던 적이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양반가 여성은 문화 권력을 지니고 있는 양반가 남성의 한문학과 견주어 자신들의 글쓰기를 평가하지 않았다. 다만 가사 짓기를 즐기면서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글쓰기를 해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성의 가사 작품을 적극적으로 향유해나갔다. 이렇게 양반가 여성의 가사 짓기 문화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일상적인 글쓰기의 문화,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를 담보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주체적인 소집단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현대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양반가 여성의 ‘가사 짓기 문화’는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글쓰기의 생활화’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다. 가사문학은 글쓰기의 문화 배경 안에서 인문학적 정신세계를 지향했던 우리 민족성의 하나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사문학이 지닌 정신적 가치야말로 현대인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전통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사문학이 지닌 정신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우리 민족성에 대한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가사문학이 지닌 정신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사문학을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가사문학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장소로의 환원과 정체성 구현

이제 다시 가사문학 전반으로 돌아가 보자. 가사문학은 1) 양반사대부가 의도적으로 우리말 시가를 쓴다는 국문의식으로 창작해 스스로 향유하고자 한 경우, 2) 양반사대부가 학동이나 여성들과 같이 ‘글을 알게 된

층'을 겨냥해 창작하여 그들과의 소통을 피하고자 한 경우, 그리고 3) 새롭게 '글을 알게 된 층', 특히 양반가 여성이 창작해 스스로 향유하고자 한 경우가 있다. 가사문학사의 전개를 살펴보면 조선전기에 1)이 우세하던 것이 조선후기와 근대기로 갈수록 1)과 2)가 지속되는 가운데 3)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사문학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가히 국민 생활문학⁴⁾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창작이 활발해졌다. 가사문학의 전통적인 담당층인 양반사대부의 작품 뿐만 아니라 양반가 여성의 규방가사와 무명씨 작품이 폭발적으로 늘어 가사 창작이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적 장르로서 가사문학은 근대기에 이르러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여 엄청난 수의 작품을 남기게 된 것이다.

관광의 키워드는 '장소'이다. 가사문학은 텍스트로 존재하는 문학이므로 이것이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장소'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이는 엄청난 수의 가사문학이 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광의 키워드인 '장소'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소'로 환원된 가사문학은 특정 '장소'의

4) 19세기 중엽에 상층 사대부의 가사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北遷歌> <東游歌> <景福宮營建歌> <燕行歌> <北行歌> <海東漫話> <蓬萊別曲> <相思別曲> <朴學士曝曬日記> 등 9편이 그것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는 1853년의 <북천가>를 제외하면 8편의 작품이 1862년에서 71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홍정유, 조두순, 홍순학, 정현덕, 이세보, 박정양 등 6인은 모두 京華士族이며, 김진형, 안치목(嶺南士族으로 관직에 머무르기 위해 서울에 거주했던 사대부), 유인목 등 3인은 영남사족이다. 작품을 창작할 당시 작가의 나이는 20대가 2명, 30대가 3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그리고 70대가 1명인데, 2-30대가 전체 9명 가운데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유가>의 홍정유, <연행가>의 홍순학, <북행가>의 유인목, <상사별곡>의 이세보, 그리고 <박학사포쇄일기>의 박정양이 2-30대 젊은 작가이다. 특히 2-30대 작가의 작품은 <상사별곡>을 제외하고 <동유가>(2189구) <연행가>(3782구) <북행가>(1962구) <박학사포쇄일기>(4732구) 등 모두 기행의 형식을 지닌 장편 가사인 점이 특징이다. 이들이 창작한 가사들은 장편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승력이 높아 많은 이본을 남겼다. 19세기 중엽 상층 사대부의 가사 창작이 지니는 가사문학사적 의미는 19세기 중엽에 향촌사족과 여성의 가사 창작이 보태져서 가사가 국민생활문학이 된 양상을 가장 전형적이고 극대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이다(고순희, 「19세기 중엽 상층사대부의 가사 창작」, 『국어국문학』 제149호, 국어국문학회, 2008, 109~132쪽).

정체성을 모색하고 구현하는 데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가사문학의 창작과 향유는 대부분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사문학은 지자체, 문중, 단위마을 등과 같이 ‘장소’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 특정 장소와 관련한 가사문학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관광지라면 콘텐츠로 활용하여 그곳의 관광 내용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소’는 작품 내용에서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장소’일 수도 있고, 작가의 출신지나 창작지일 수도 있다⁵⁾. 가사문학과 관련하여 ‘장소’란 호남문화권·영남문화권·서울문화권 등과 같은 문화권, 서울·담양·장흥·안동 등과 같은 시군, 금강산·묘향산·천관산·지리산·한강·낙동강 등과 같은 유명 산·강, 면양정·식영정·지수정 등과 같은 개별 누정, 매호·청학동·종택과 같은 특정마을과 문중, 전쟁박물관과 같은 특정 기관 등을 모두 지칭할 수 있다. 가사문학을 ‘장소’로 환원한 고전시가 및 지역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와 관련한 가사문학에 대한 논의는 매우 범박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유전하는 가사문학의 실상과 발표자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뚜렷하게 특징이 드러나는 호남문화권과 영남문화권, 몇몇 시군면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차례로 논의해보고자 한다⁶⁾.

5) 가사문학을 ‘장소’로 환원하는 데 이 두 가지 점은 동시에 중요하다. 누정에 대해 읍은 가사는 그 누정이 있는 장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만주망명가사와 같은 경우 만주라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작가의 출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가사들이 만주에서 창작되고 만주의 풍광이나 생활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주에서 향유, 유통된 것이 아니라 주로 고국 작가의 고향으로 반입되어 향유,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문학을 장소로 환원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서울문화권에서는 허강의 <서호별곡>, 허난설헌의 <규원가>와 같이 일찍부터 가사문학의 창작이 있어왔지만 상대적으로 호남·영남문화권만큼 활발하게 창작이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사문학의 장르적 성격과 담당층이 중앙의 집권사대부 문화보다는 지방의 은거 선비문화와 관련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에 서울문화권의 가사는 <춘면곡><상사별

호남문화권의 경우 조선시대 양반가사가 활발하게 창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상춘곡>을 비롯하여 조선전기 양반가사의 상당수가 호남문화권에서 창작되었다. 한글 창제 후 임진왜란 전까지 창작된 가사문학은 총 27편인데, 이 가운데 10편⁷⁾이 호남문화권에서 창작되었다. 의작여부가 있는 이황의 5편 교훈가사와 이이의 4편 교훈가사를 빼고 나면 호남권에서 가사 창작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가사문학의 정체성은 ‘누정문학’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가사문학사의 초창기에서부터 <상춘곡><면양정가><성산별곡> 등 누정가사와의 연관성이 높은 작품들이 이 지역에서 창작되었고, 조선후기에도 이 지역에서는 누정가사가 꾸준히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사문학을 ‘누정문학’에 의미를 보다 부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문학의 창작이 ‘한글 창제 이후’ 호남문화권에서 활발했다는 점은 호남문화권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선전기에 이 지역에서 창작된 가사문학은 누정문학으로서의 작품 외에도 <만분가><낙지가><관서별곡><남정가><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등과 같은 작품도 있다. 따라서 이 지역 가사문학의 정체성을 누정가사로만 확립하는 것은 이 지역 가사문학이 지니는 역사적·문학적 의미와 가치를 한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조선전기 ‘한글 창제 이후’에 이 지역에서 가사문학의 창작이 활발했다고 하는 점은

곡><노처녀가><승가> 연작 4편 등의 애정가사, <향산별곡>과 같은 현실비판가사, 이운영의 가사 6편 등이 창작되고 향유되어 가사문학 담당층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東游歌><景福宮營建歌><燕行歌><蓬萊別曲><相思別曲><朴學士曝曬日記> 등 경화사족의 작품이 창작되었으며, 이외 <태평사>와 <경복궁중건승덕가><북궐중건가>, 한양의 역사·풍물·사건을 소재로 한 <한양가> 등이 창작되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한양오백년가> 등이 창작되었다.

- 7) 류연석의 『한국가사문학사』(국학자료원, 1994, 94쪽, 117쪽)에서 발생기와 발전기의 가사를 정리한 도표에 의한 것이다. 정극인의 <상춘곡>, 조위의 <만분가>, 이서의 <낙지가>, 백광홍의 <관서별곡>, 양사준의 <남정가>, 송순의 <면양정가>, 정철의 <성산별곡><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등 10편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한글 창제 이후’에 이 지역의 사대부들이 한글을 이용한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양반 지식인은 한글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문자의식을 지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사문학사의 초창기에 특별히 이 지역에서 양반가사가 많이 창작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지역에서 남아 전하는 가사가 많아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한글을 이용한 선조의 가사문학을 잘 보존해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 역시 한글의 가치를 이 지역에서 보다 더 소중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 지역문화권의 가사문학은 백성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역사적·문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 점을 이 지역 가사문화권의 정체성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영남문화권에서는 근대기를 거쳐 한국전쟁기에 이르기까지 양반가 남성은 물론 양반가 여성이 창작한 가사문학 작품이 필사본 형태로 대거 전해지고 있다. 현대에 와서 가사의 필사본은 거의 대부분 영남문화권에서 수집되었다. 특히 영남문화권의 가사문학은 규방가사의 창작이 활발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까닭에 규방가사를 조사하고 연구한 연구자와 개인 가사집을 출간한 작가는 영남문화권과 이 문화권 출신이 가장 많다. 영남문화권의 양반가 여성에게 ‘가사를 짓고 감상하는 일은 하나의 필수적인 교양이요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 있었다.’⁸⁾ 양반가 여성은 가사 창작을 일상생활문화로 간직하고 있어, 글쓰기를 시작하는 10대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연들을 가사에 담았다.

영남문화권의 지역문화에서 규방가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남문화권에서는 양반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영남의 지역학에서 양반가 여성이 창작한 규방가사를 다룬 논의는 거의 없고, 양반가 여성의 의식주 일상생활문화는 논의되고 있다. 따

8) 최태호, 『교주 내방가사』, 형설출판사, 1980, 3쪽.

라서 양반가 여성의 의식주 일상생활문화와 함께 ‘가사의 창작과 향유’ 문화도 양반문화의 하나로 당당하게 편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가사문화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양반가 남성의 가사와 함께 양반가 여성의 규방가사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시군면 단위의 장소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시군면 단위의 가사문학은 지역학의 연구 과제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작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곳은 담양이다. 담양의 가사문학⁹⁾으로 정리되어 알려진 작품은 교과서에 실려 고전의 正典이 된 송순의 <면앙정가>와 정철의 가사 작품 등 총 17편이나 된다. 담양은 이미 ‘가사문학의 산실’, ‘가사문학의 고향’, ‘가사문학의 원류’ 등의 수식어로 표현될 정도로 가사문학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담양군청이 건립한 가사문학관은 이미 이 지역의 관광포인트가 된 지 오래다. 담양군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사문학학술진흥회를 두어 해마다 가사문학 낭송대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사문학 전문 잡지인 『오늘의 가사문학』을 발행하고,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해마다 공모를 통해 가사문학상도 수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인 대부분은 ‘담양’하면 ‘대나무’와 ‘가사문학’을 떠올릴 정도로 가사문학과 관련한 담양의 지역적 정체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장흥도 가사문학의 창작지로 손꼽혀 지역학과 문화지리학적 측면에서 가사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지역이다. 연구에 의하면 장흥지역 가사문학으로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총 10편의 가사가 정리되었는데¹⁰⁾,

9)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담양군, 2001, 1~157쪽; 김신중·박영주 외, 『가사 : 담양의 가사 기행』, 담양문화원, 2009, 1~318쪽; 김은희, 「담양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기문화연구』 제35집, 2015, 83~117쪽;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제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169~203쪽.

10) 박수진, 『문화지리학으로 본 문림고를 장흥의 가사문학』, 보고서, 2012, 26~27쪽; 김석중·백수인, 『장흥의 가사문학』, 장흥군, 2004, 1~307쪽; 김성기, 「장흥지역의 가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문학회, 1995, 239~258쪽;

백광홍의 <관서별곡>, 위백규의 <자회가>, 무명씨의 <임계탄> 등이 대표적 작품이다. 장흥은 전국 최초로 문학기행특구로 지정되어 천관산문학공원과 한승원문학산책로 등을 조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산마을을 중심으로 가사문학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장흥의 정체성을 가사문학과 연관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안동은 영남문화권 안에서 특별히 규방가사 창작의 중심지라는 특징이 있다. 이재수가 총 597편이나 되는 내방가사 자료의 출처를 정리한 것에 의하면 예안, 안동 일대가 158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편수가 많음이 드러난다¹¹⁾. 권영철은 규방가사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안동문화권, 성주문화권, 경주문화권 등 세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총 2036편에 달하는 수집된 가사 자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23편이 안동문화권에서 수집되었다¹²⁾. 이와 같이 안동은 ‘규방가사의 대중심지이며, 또한 본고장’¹³⁾이었다. 안동의 지역적 정체성으로 가장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양반문화’와 ‘독립운동의 메카’라는 것이다. ‘퇴계’, ‘선비의 고장’, ‘명문대가’ 등으로 대표되는 안동의 양반문화에 양반가 여성의 가사문학 창작이 수용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동에서 ‘만주망명가사’와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가 가장 많이 창작된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들 가사는 안동의 명문대가에서 만주망명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왔고, 이들 독립운동가 다수가 여성을 동반하여 망명했기 때문에 창작될 수 있었다. 안동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요소인 ‘명문대가’와 ‘독립운동의 메카’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가사문학이 ‘만주망명가사’와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이다. 그러므로 ‘만주망명과 관련한 가사문학’을 안동의 지역적 정체성에

김신중, 「장흥 가사의 특성과 의의-작품현황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학회, 2011, 119~140쪽;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앞의 논문.

11)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13쪽.

12)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77쪽.

13) 권영철, 앞의 책, 89~90쪽.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¹⁴⁾. 이 외에도 가사문학의 지역적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 부산은 지역의 핵심 축제로 조선통신사축제를 매년 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일동장유가>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별사미인곡>, <탐라별곡>, <함라별곡>, 추자도는 <속사미인곡>과 <만언사>, 울릉도는 <정처사술회가>, 금당도와 만화도는 <금당별곡> 등의 가사문학 작품이 창작된 곳이다. 그리하여 각 섬에서는 이 가사 작품들을 섬의 관광 포인트에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마을이나 문중 단위에서 가사문학을 통시적으로 조사하면 비교적 풍부하게 작품들을 정리할 수 있어 그 ‘장소’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상북도 영주의 무섬마을에는 무섬자료전시관이 있는데, 이곳에 이중선여사의 가사집, 김응룡여사의 <기망가> 등의 가사문학 필사본을 전시해놓고 있다. 그리고 안동의 원촌마을에서 창작된 규방가사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원촌마을의 규방가사는 41편이나 된다¹⁵⁾고 한다. 그리고 어느 마을은 한 문중의 집성촌인 경우도 있어 문중 단위의 가사문학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중에 따라서는 그 동안 창작된 가사 작품을 통시적으로 모으면 그 수가 상당한 경우가 있다. 각 문중에서 창작된 가사 작품을 통시적으로 모두 정리하는 일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 다만 이 자리에서는 필자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합천 화양동 파평윤씨가 <기수가> 연작 9편, 춘천 고흥류씨 문중의 의병가(윤희순 작)와 <고병정가사><신세타령>, 봉화 답실마을 안동권

14) 영남문화권과 안동의 가사문학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했다.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25~26쪽.

15) 김정화, 「원촌의 규방가사」, 『안동의 원촌마을-선비들의 이상향』,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예문서원, 2011, 103~136쪽. 그런데 이 논문에서 원촌마을의 규방가사로 정리한 작품 가운데는 <북천가>도 들어 있어 작가의 출신지나 창작지를 중심으로 가사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을에서 향유했던 가사 작품도 상당수 포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북천가>를 쓴 김진형은 안동 금계마을 사람이다.

씨가의 <사향곡><사친가>, 성주 성산이씨가의 <감회가><별한가>, 안동 이중린가의 <입산가><생조감구가><여자탄>, 안동 내앞김씨가의 <분통가><유산일록><환향유록><이부가><문소김씨세덕가><사향가>, 안동 철성이씨가의 <간운사><조손별서><회상>, 안동 풍산류씨가의 <쌍벽가><답사친가><장자수연가><화유가><화전가> 등이 있다. 앞에서 인용한 문중들은 가사의 창작과 향유 전통을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부터 문중에서 창작된 가사 작품을 수집하고, 이 가사들에 각 문중에서 창작된 것으로 고증된 무명씨작 규방가사 작품들이 덧붙여진다면 가사문학과 관련한 문중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개별적인 산수자연 공간을 읊은 가사로 <천풍가>(천관산), <향산별곡>(묘향산), <입암별곡>(영천 입암), <매호별곡>(상주 매호), <청학동가>(청학동), <용추유영가>(지리산 용추동), <서호별곡>(한강), <백마강가>(백마강), <면양정가><지수정가> 등이 있다. 이 가사문학은 특정 산수자연 공간의 느낌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 그리고 <임계탄><거창가><갑민가><합강정가> 등의 현실비판가사는 장흥, 거창, 갑산, 순창 등 지역의 산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 향토사와 관련한 답사 프로그램에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의 ‘장소’에서도 가사문학이 활용될 수 있다. 경복궁 중건과 관련하여 창작된 가사문학 작품으로는 <경복궁영건가><기원별록><경복궁중건승덕가><북궐중건가>¹⁶⁾ 등이 있다. 이 가사들은 경복궁 내에 건립되어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알차게 하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양사준의 <남정일기>는 을묘왜란을 배경으로, 박인로의 <태평사><선상탄> · 최현의 <용사음><명월음> · 백수희의 <재일

16) 고순희, 「<경복궁영건가>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1~30쪽; 고순희,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의 작품세계와 형식적 변모」,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1~24쪽.

본장가>·김충선의 <모화당술회가> 등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무명씨의 <병자난리가>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창작된 가사 작품이다. 그리고 <회심스><월한가><고향 쉰 회심곡><피란사><나라의 비극><추월감><셋태비감> 등 7편은 한국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창작된 가사 작품이다¹⁷⁾. 이 가사 작품들은 모두 전란을 배경으로 창작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전쟁기념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제주의 전쟁역사박물관, 강화의 강화전쟁박물관 등의 전시 내용을 알차게 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그러면 가사문학을 어떻게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유전하고 있는 수많은 가사문학 작품을 관광의 키워드인 ‘장소’로 특정화하는 작업이다. 가사문학 작품이 특정 ‘장소’와 연결되지 않으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학이나 문화지리학적 측면에서 가사문학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에 창작된 양반가사는 대부분 작가가 알려져 있지만, 작가의 고향이나 작품이 창작된 근거지가 명확하게 특정화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양반가사의 작품이 잘 정리되고 있는 지역은 담양과 장흥인데, 이 지역에서 비교적 작가를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양반가사 작품이 많이 유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양반가사 문학은 연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장소’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 및 무명씨 작 작품의 경우 특정 ‘장소’로 환원되지

17) 고순희, 「한국전쟁과 가사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5~32쪽.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여성이 쓴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는 규방가사의 유형성 안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있어, 작가나 창작지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명씨 작 작품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 작품 가운데는 내용을 면밀하게 읽으면 구체적인 작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작가의 출신지와 창작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서가 있어 ‘장소’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도 있다. 그런데 작품 내용에 옛 지명이나 고을 등이 나오는 경우 타 지역 연구자가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아는 지역학 분야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장소’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필사본이 대거 수집되는 영남지역의 각 지자체와 그 지역 연구자는 지역의 가사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가사집을 출간하기도 했다¹⁸⁾. 그런데 예를 들어 ‘영천의 가사집’이라고 해서 그 책에 수록된 가사가 모두 ‘영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영천의 가사집’은 어디까지나 ‘영천’ 지역에서 ‘수집’된 가사 자료를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사집에 실린 가사 작품들은 유통지역의 범위를 감안할 때 영남지역에서 창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가사집을 펴낸 그 지역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안동의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 혼반으로 엮힌 경로를 통해 유통되어 영천에서도 향유되다가 수집 정리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출판한 가사집에 실려 있는 가사 작품들도 면밀하게 작품 내용을

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367~484쪽; 구미문화원, 『규방가사집』, 도서출판 대일, 1984, 1~136쪽; 이대준, 『낭송가사집』, 세종출판사, 1986, 1~282쪽; 영천시 문화공보실 편, 『규방가사집』, 영천시, 1988, 1~374쪽; 울진문화원, 『울진민요와 규방가사』, 울진문화원, 2001, 1~380쪽; 문경문화원, 『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향토사료 제10집)』, 문경문화원, 1994, 1~299쪽; 이대준, 『낭송가사집 2』, 한빛, 1995, 1~668쪽; 이대준,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1~647쪽; 봉화문화원, 『우리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봉화문화원, 1995, 1~327쪽;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전5권), 국학자료원, 2003, 면수 생략.

살펴 다시 특정 ‘장소’로 좁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사문학을 관광의 ‘장소’로 환원하는 연구는 가사문학의 전체 작품 수에 견주어 볼 때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이 작업은 이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가사문학을 관광의 ‘장소’와 연결하여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차적인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가사문학이 관광의 ‘장소’로 환원된 이후에 떠오르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의 유형문화로 형상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전에 문학을 축으로 하는 관광 포인트는 자연경관, 휴식, 오락 등을 축으로 하는 관광 포인트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에서 구축되어 왔다. 문학을 축으로 하는 관광 포인트는 세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처럼 그 자체가 관광의 주목적인 경우가 드물었다. 대부분은 그 지역의 다른 곳을 관광하기 위해 왔다가 잠시 들르는 정도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은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 변화의 하나는 슬로시티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관광의 패러다임은 관광하는 ‘장소’의 자연경관, 휴식, 오락 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의식주 생활문화 전반을 누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슬로시티의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지인이 마련하고 구축해놓은 일상생활문화를 외지인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관광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⁹⁾.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해외여행의 증가에 따른 관광인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하게 된 현대인은 여행의 경험이 축적되면 될수록

19) 한국에서 국제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곳은 완도 청산, 신안 증도, 담양 청평, 하동 악양, 전주 한옥마을, 청송 부동·파천, 상주 함창·이안·공검, 예산 대흥·응봉, 제천 수산, 남양주 조안, 영월 김삿갓 등지이다. 최근에는 슬로시티의 개념을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김옥희, 「슬로시티 철학 구현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위한 탐색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제27권 3호,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5, 3~31쪽.

문화관광자원의 핵심이 민족문화유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화관광자원도 민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관광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주의 한옥마을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역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인식이 성숙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관광의 패러다임이 지역의 일상생활문화를 체험하고자 하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기획자의 사고도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 동안은 관광의 주체를 외지인으로 상정하여 볼거리와 놀거리의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기획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지 주민을 상정하여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가꾸는 방향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 식의 외관에 중점을 둔 ‘개발식’ 기획보다는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소박하게 가꾸고 재현해내는 ‘작은’ 기획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작은’ 기획을 통해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민이 그 ‘장소’를 우선적으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문학은 이러한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탬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걷기 좋은 길을 앞 다투어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걷기 좋은 길은 일차적으로 지역민이 이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의 가사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이 길에 연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가사문학은 다양한 작품세계를 지니고 있어 지역의 인물, 문화, 역사 등을 지역민이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아이탬이기도 하다. 길을 걷다가 누정을 들르고 강을 만나고 때로는 문중 앞을 지나게 될 때 특정 ‘장소’에 이르러 가사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대표 구절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길이 문학적 향기가 넘쳐나는 길이 될 것이다. 특정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대표적인 가사문학 작품의 제목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문중의 전통요리·예절과 함께 규방가사를 낭독하거나 규방가사 글쓰기를 해보는 정기적인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기획은 우리 선조들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한국인의 자긍심, 지역의 자연을 시간을 초월하여 공유한다는 선조와의 공감, 지역의 인물과 역사에 대한 이해 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사문학을 활용한 ‘작은’ 기획이 지역의 정체성의 면에서 볼 때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사문학의 글쓰기가 일상적 생활문화로 있어 온 것으로 우리 민족이 지닌 소중한 정신적 가치, 즉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점은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도 가사문학을 창작했다는 점은 그 자체가 인문학적 정신세계를 지향했던 우리의 민족성을 고스란히 반영해주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생활화한 우리의 문화는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5.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가사문학 장르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규방가사의 문화적 가치를 살핌으로써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 부분을 필자가 강조하여 논의한 것은 가사문학 전체 작품 수에서 규방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기획자와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규방가사의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규방가사의 담당층인 양반가 여성의 ‘가사 짓기 문화’는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화’를 의미한다. ‘글쓰기의 생활화’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며, 이런 정신적 가치의 실천으로 생산된 규방가사는 현대인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전통문화유산이다. 가사문학을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굴함으로써 ‘글쓰기의 생활화’를 실천한 우리 선조의 훌륭한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사문학이 ‘장소’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현재 수 천 편에 달하는 가사문학 작품이 전하고 있다. 더욱이 가사문학의 창작과 향유는 대부분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사문학은 지자체, 문중, 단위마을 등과 같이 '장소'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권, 시군, 마을 및 문중, 개별 산수자연, 특정 기관 등의 '장소'로 환원할 수 있는 가사작품을 예로 들어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과 가치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사문학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사문학을 '장소'로 환원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역학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작업은 의외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 각 지자체와 지역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각 지역의 가사문학을 조사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순희, 「19세기 중엽 상층사대부의 가사 창작」, 『국어국문학』 제149호, 국어국문학회, 2008, 109~132쪽.
- 고순희, 「〈경복궁영건가〉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1~30쪽.
- 고순희,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의 작품세계와 형식적 변모」,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1~24쪽.
- 고순희, 「한국전쟁과 가사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5~32쪽.
-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25~26쪽.
- 구미문화원, 『규방가사집』, 도서출판 대일, 1984, 1~136쪽.
-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41~44쪽.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77쪽, 89~90쪽.
- 김병국, 「가사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31~62쪽.
- 김석중·백수인, 『장흥의 가사문학』, 장흥군, 2004, 1~307쪽.
- 김성기, 「장흥지역의 가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문학회, 1995, 239~258쪽.
- 김신중, 「장흥 가사의 특성과 의의-작품현황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학회, 2011, 119~140쪽.
- 김신중·박영주 외, 『가사 : 담양의 가사 기행』, 담양문화원, 2009, 1~318쪽.
- 김옥희, 「슬로시티 철학 구현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위한 탐색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제27권 3호,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5, 3~31쪽.
- 김은희, 「담양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중

- 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2015, 83~117쪽.
- 김정화, 「원촌의 규방가사」, 『안동의 원촌마을-선비들의 이상향』,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예문서원, 2011, 103~136쪽.
- 담양군, 『담양권 가사와 그 유적의 조사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담양군, 2000, 1~395쪽.
-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94쪽, 117쪽.
- 문경문화원, 『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향토사료 제 10집)』, 문경문화원, 1994, 1~299쪽.
- 박수진, 『문화지리학으로 본 문림고을 장흥의 가사문학』, 보고서, 2012, 26~27쪽.
-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담양군, 2001, 1~157쪽.
-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217~249쪽.
- 봉화문화원, 『우리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봉화문화원, 1995, 1~327쪽.
- 영천시 문화공보실 편, 『규방가사집』, 영천시, 1988, 1~374쪽.
- 울진문화원, 『울진민요와 규방가사』, 울진문화원, 2001, 1~380쪽.
- 이대준, 『낭송가사집』, 세종출판사, 1986, 1~282쪽.
- 이대준, 『낭송가사집 2』, 한빛, 1995, 1~668쪽.
- 이대준,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1~647쪽.
-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제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169~203쪽.
-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13쪽.
-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전 5권), 국학자료원, 2003, 쪽수 생략.
- 이형대, 「기행가사 기반의 전자문화지도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311~341쪽.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367~484쪽.

최태호, 『교주 내방가사』, 형설출판사, 1980, 3쪽.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 제33집, 한국
고시가문학회, 2014, 345~399쪽.

<Abstract>

The Value of 'Gasa' as a Resource of Culture-Tourism

Ko, Soo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Value of Gasa as a Resource of Culture-Tourism'.

First, focusing to female Gasa, I investigated the cultural meaning 'the culture of writing Gasa'. 'The culture of writing Gasa' have the cultural meaning which is the 'daily life of the humanistic spirit'. The 'daily life of the humanistic spirit' is a spiritual value which modern peoples has lost. We need to inherit and develop the humanistic spirit of 'Gasa', and need to heighten our pride on the ethnicities. Therefore we must positively exhume 'Gasa' as a Resource of Culture-Tourism.

Secondly, I investigated the point that 'Gasa' have the possibility to connect to the 'place'. The 'place' is a keyword of tourism. 'Gasa' has various work-worlds, and huge pieces. If 'Gasa' connect to the 'place', It can help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region.

Finally, I suggested the ways to conjugate 'Gasa' as a Resource of Culture-Tourism. The resource development of culture-tourism need a 'little planning' that response to changes in the tourism paradigm. A 'little planning' will make preferentially residents to enjoy the 'place'. 'Gasa' is the best item to conjugate as a Resource of Culture-Tourism that response to changes in the tourism paradigm.

Key words : Gasa, Culture-tourism, Resource of tourism, Female-Gasa,
Damyang, Jangheung, Andong.

투고일 : 2016년 1월 14일, 심사 : 1월 18일 ~ 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